

복합 휴양시설 고흥 우주랜드 조성 본격화

전남도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

6월 기반조성 2단계 착공

666억 투입...호텔은 7월 첫 삽

고흥군이 대규모 복합 휴양시설을 갖춘 '고흥 우주랜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고흥군은 "그동안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했던 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계획이 지난 26일 전남도로부터 변경 승인 고시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고흥우주랜드는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공공부문 166억원과 민간부문 500억원 등 총 666억원을 투입해 132실 규모의 스페이스호텔을 비롯한 신개념 휴양주택인 빌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고흥우주랜드 조감도.

리지와 상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현재 진입도로와 기반조성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으며, 오는 6월부터 우수 및 오수, 조정 등 기반조성 2단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건축허가 심의 중인 스페이스호텔은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고흥군의 설명이다.

고흥군은 스페이스호텔이 지역내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호텔이라는 점에서 변경된 개발계획은 민간사업자인 우주개발(주)의 차별화된 개발전략과 건축계획 등을 적극 반영했다.

고흥군은 특히 주변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확여행단 등 대규모 관광객을 전라적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했던 고흥에 대규모 복합휴양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우주랜드가 우주 과학과 청정 자연이 어우러진 남해안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 장미축제 23만명 찾아 흥행 대박

10일간 하루 평균 2만명 방문...지역상가 매출 경증

'제6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곡성군은 "지난 20일 개막 후 29일까지 10일간 곡성 장미축제를 다녀간 관람객은 총 23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했던 지난해 축제 관광객 22만여 명보다 3% 이상 많은 기록이다. 이중 곡성 영화 관람객 입장권 티켓 할인 행사를 이용한 관람객은 626명이었으며, 축제기간 전에도 5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영화 곡성의 홍보 효과를

독특히 높였다.

특히 장미축제를 관람하러 온 입장객들로 곡성 전역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음식점과 숙박시설, 주유소, 마트 등 지역상가들도 덩달아 큰 매출을 올렸다는 게 곡성군의 설명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축제는 끝났지만, 다음달 4~6월 연휴 기간에도 장미공원을 찾은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제 성공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보성군과 군의회,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직원들이 최근 감자 주산지인 회천면 일원 감자밭에서 감자수확을 돕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감자 수확 농가 일손돕기

이용부 보성군수와 군의회 의원, 실·과·소장 및 직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장 등 100여명은 최근 감자 주산지인 회천면 일원 감자밭(5000㎡)에서 비닐 제거와 감자수확, 운반 등 감자 수확 작업을 도왔다.

보성군은 매년 공무원들이 직접 작업 도구와 식사를 준비하는 등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철마다 일손돕기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 군청 및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일손돕기 알선장구를 설치하고 지원에 힘쓰는 단체와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를 연계해 영농철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군 야생화 압화전시관 박물관 등록

명칭 '한국압화박물관'으로

구례군은 "지역 내에 있는 국내 유일의 야생화 압화전시관이 지난 26일 1층 공립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압화 전시관의 공식 명칭도 한국압화박물관으로 바뀌게 된다.

박물관 등록을 이끈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정연권 소장은 "앞으로 박물관 지원과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

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라며 "전문기관 확충 및 압화를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해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1990년대부터 지리산 야생화 전문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압화를 활용한 향수, 생활용품 개발, 압화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압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야생화 산업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lsg@



'나라호' 'SH-나라호'

고흥 유람선 해상 관광 인기몰이

금진항·나로도 2척 운행

하루 평균 300여명 탑승

본격적인 나들이 시즌을 맞아 고흥 금진항과 나로도항에서 출발하는 해상 유람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복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고흥지역의 절경들이 일출을 타면서 전남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0일 고흥군에 따르면 금산면 소재 금진항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나라호'와 봉래면 나로도항의 'SH-나라호'에 하루 평균 300여명의 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다.

'나라호'는 고흥군 소속도와 연호도를 거쳐 완도 금당도의 금당 8경(병풍바위, 부채바위, 스님바위, 교양정품, 금당절벽, 초가바위, 코끼리바위, 남근

바위)을 비롯한 상여바위, 거북바위, 약어바위, 새아파트바위, 가마바위, 꽃섬용머리 등 기암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2시간 코스로 이뤄져 있다. 141톤으로 승선 인원이 200명인 '나라호'는 편의시설을 갖춘 3층 객실과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다.

'SH-나라호'는 나로도항을 출발해 서답바위, 부채바위, 곡두어, 카멜레온바위, 사자바위, 용굴(쌍굴), 부채바위, 나로우주센터, 남근바위, 상록수림을 거쳐 나로도항으로 되돌아오는 1시간 50분의 코스로 짜여 있다.

29톤 규모로 여객정원 94명의 'SH-나라호'는 금진항의 '나라호'보다는 작지만 아름답고 안락한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운행시간은 금진항 '나라호'는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4시30분) 비정기

선·오후 2시 정기선) 운행되며, 나로도항 'SH-나라호'는 오전 2회(8시, 10시), 오후 2회(1시30분, 3시30분) 운행된다.

승선요금만 나라호와 나로도호 각각 대인 1만7000원, 단체 1만5000원으로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진항 대표소(061-834-8877), 나로도항 대표소(061-834-8112)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려한 경치가 푸른 다도해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고흥반도 해상관광은 육지관광과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색다른 관광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승선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승선예약을 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홍암 나철선생

유물 찾습니다

보성군 서거 100주년 자료 수집

보성군이 독립운동의 아버지 홍암 나철선생 서거 100주년을 맞아 관련 유물·자료를 수집한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수집대상 품목은 홍암나철 선생 관련 유물, 생활용품, 독립운동 관련 근현대 자료, 각종 기록(문서, 출판·인쇄물, 신문, 도서, 사진·필름·동영상 등)이다.

홍암 나철 선생 관련 유물에 대해 매도·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중중 포함), 문화재 담당업무자 및 법인, 단체 등은 유물사진 등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춰 보성군 문화관광과에 접수하면 된다.

매도·기증 희망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도공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유물)되지 않아야 하며,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구입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물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하는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기증 유물은 홍암나철 기념관의 소장품으로 등록 후 기증자 명판을 부착 전시하거나 연구·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홍암 나철선생이 백두산 등 독립운동 활동영역이 넓은데다 세월이 지나 유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홍암 선생 연구, 전서, 영상물 및 문화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보성=김윤성기자 kim0686@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인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빛가람 탐공인중개사

나주혁신도시 매물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국도1호선 도로변(혁신도시 인근)
 - 토지 매매 (토지 7,657㎡)
 - (근저 1층 258㎡, 사무실 2층 72㎡, 1층 점포 173㎡)
 - 가든 식당, 사무실, 창고, 한옥기와주택 (조경 최상)
 - 매매가 25억
- ▶ 나주시 빛가람동 근린 생활 부지 690㎡, 매 15.5억
- ▶ 빛가람동 부영 1차 앞 토담빌딩 801호 임대
 - 코너 상가, 전망최상 - 전용 179㎡
 -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헬스장, 노래방, 외우바
 - 임대가: 보 5천, 월 130만원
- ▶ 빛가람동 초·중·고 앞 2층 상가 임대
 - 아파트 최대 밀집지역 코너상가 - 전용 210㎡
 - 치과, 한의원, 피부과, 커피숍, 미용실
 - 임대가: 보 1억, 월 200만원
- ▶ 나주시 빛가람동 중흥 오피스텔 1·2차 상가 2층 임대
 - 1차 2층 상가 임대 203호, 204호
 - 2차 2층 상가 임대 211호, 212호, 213호, 215호
 - 중흥 아파트 1·2차 정문 앞 2층 상가
 - 병 의원, 학원, 미장원, 프렌차이즈, 음식점 등
- ▶ LH 6차 아파트 인근 코너 1층 상가 임대 보 3천만원, 월 50만원
- 5층 상가 임대 보 3천, 월 130만원
- ▶ 단독주택 부지 269㎡ 매 1.62억
- ▶ 영유 대광 아파트 110㎡ 매 2.3억 (확장비 별도)
- ▶ 대광아파트 단지내 상가 1층 47㎡ 매 3.3억

PC방, 맘스터치 최적지 임대!

분양 및 임대문의 010-6688-9114
010-9120-9114

당신의 부동산 경매의 멘토이자 파트너

(주)사랑방경매가 부동산 경매를 혁신합니다

<p>[광산구 장덕동 근린상가]</p> <p>수원지구 8차선대로점점 1~2층 식당 및 주택, 주차장 소매점 및 음식점상고 등 대지 2,429㎡ / 건물 998㎡</p> <p>감정가 32억 5천 4백만원 최저가 22억 7천 8백만원</p>	<p>[동구 동명동 근린시설]</p> <p>법원~정동로터리 4차선도로점 1층마트, 2~8층 오피스텔 상업지역, 시장지역 대지 1700㎡ / 건물 2005㎡</p> <p>감정가 19억 5천 9백만원 최저가 10억 9천 7백만원</p>
<p>[남구 주월동 근린시설]</p> <p>제석초 건너편, 4차선도로점 지하1층~지상6층 학원 및 상가 제3중주거지역, 아파트밀집 대지 342㎡ / 건물 1259㎡</p> <p>감정가 7억 9천 7백만원 최저가 5억 5천 8백만원</p>	<p>[남구 진월동 수익토지]</p> <p>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뒤 포장도로점, 계획도로 일부수용 제3중일반주거지역, 투자적합 전 1299㎡ (393평)</p> <p>감정가 3억 4천 7백만원 최저가 2억 4천 3백만원</p>

(주)사랑방경매 Tel. 062)233-3372
Sarangbang Auction Consulting Co., Ltd. 지산동 법률구조공단 옆